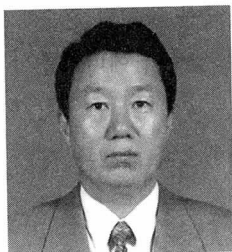


Essay

용마산과 아차산

오 문 균 〈서울교대 강사〉 .



내가 3년여째 겁나게 쏟아지는 비가 올 때만 제외하고 어김없이 일요일 오전의 커다란 행사(?)의 일환으로 오르는 곳이 해발 348.2m의 높지않은 용마산과, 더불어 짝을 이룬 아차산이다.

아마 아차산은 과거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격전지로 유명한 아차산성이 있어서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지, 실제로는 용마산의 한자락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용마산과 아차산!

아마 전국의 유명한 국립공원이나 전국적으로 제법 이름이 난 산들을 섭렵한 사람들은 그것도 산인가 하며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많지 않은 산 중에서 가장 애착을 느끼는 소중한 산이다. 그런 두 산은 항상 자애로운 누님같이 하시라도 나를 맞아준다.

내가 용마산과 아차산을 본격적으로 찾은 것은, 항상 책상 위에 앉아서 책을 보아야 하는 직업에 불혹을 넘긴 연조(年條)의 시기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궁리하면서였고, 그 때 마침 그 두 산을 남과 서로 교차하는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한 1996년의 후반기부터 였었다.

또한 항시 바쁜 일정에 쫓기는 가운데 집에서 가까워 3시간 정도의 산행을 오전내로 끝마치고, 오후에는 이제는 공부라기 보다는 일이 되어버린, 밀린 책읽기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점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득 어느날 부터인가, 산에 있는 조그만 돌부리 하나 이름모를 풀 한포기 하나가 나를 부르고, 나는 더이상 그들의 부름을 거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조상들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열심히 살았던 흔적들이 나를 심각하게 유혹했다.

서로 사이좋게 붙어있는 용마산과 아차산은 전자는 형상이 우선 용과 말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겠고, 아차산은 원래 아단(阿旦)산이었으나 조선의 창업자 이성계에 이르러 아차(阿且)산으로 바뀐 것을 보면, 아마 한강을 마주한 지역에 도움을 정했었던 백제의 건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풍수와 지리에 대하여 문외한인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용마산은 조금은 성깔이 있어 보이는 오빠와 같은 산이다. 이런 용마산은 돌의 질이 뛰어나, 채석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산 자체가 평지가 될 운명이 된 적도 있었다. 그런 연유로 비록 348.2m의 용마산은 그것의 지형에 따라 여느 험산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일부는 가파르다. 특히 북서로 뻗은 자락은 유난하게 험하기까지 하다.

반대로 아차산은 어느 곳하나 험한 곳이 없다. 너르디 너른 돌바위는 수천명이 앉아서 놀아도 될 너큰한 명석 그 자체다. 물론 아차산의 북쪽 자락에 아차산 보루성이 있고, 최근들어 위키힐로 잘 알려진 곳 남동쪽으로 아차산성이 있으나, 그것은 산 자체가 험한 요새여서가 아니라 동남쪽의 한강 저멀리와 남한산성까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의 가치때문이었으리라 보여진다.

아뭇든 용마산이 성깔이 있는 오빠산이라면, 아차산은 오래비의 성정을 살며시 누그러 뜨려주는 누이의 모습이다.

다정한 오누이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두 산은 과거 1,500년 경에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서울시 중랑구와 광진구 그리고 광진구와 경기 구리시의 세 곳에 자신을 맞긴 채 찾는 사람들을 항상 편안하게 맞아주고 있다.

그럼에도 격전장이 아닌 또 다른 형태로서 두 산의 오늘의 역할은 중요하다. 두 산의 경우 20여리 사방이 훤히 트인 관계로 서울에 소재하는 최상급 삼각점 중의 2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자그마한 두개가 모여 하나인 산!

아차산과 용마산을 어김없이 주말마다 오르는 나는 두 산을 서슴없이 우리산(광진구 중랑구 사람들의 산)이라 부른다. 만약 두 산이 북한 산이나 관악산처럼 600~700m의 높이에 이르렀다면 두 산은 분명히 우리 것이 되지 못하고, 아깝긴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주변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곳 중의 하나가 용마산 정상에서 발길을 동남방의 아차산쪽으로 돌려, 아차산과 용마산의 분기점이 되는 곳에 자리한 1,405m에 이르는 「긴고랑」의 모습이다. 유일하게 물이 가장 많은 곳이며 제법 장대비라도 1~2시간 올라치면 10~20m 되는 계곡에 물이 불어 사람들이 다니기에 위험한 곳이 된다. 그러나 그 후 4~5시간이 지나면, 긴고랑의 물은 여느 시냇물의 노래소리를 흥내내며 조용히 흐른다.

또한 용마산과 아차산의 경우는 그것의 북쪽 자락에 투박한 황토흙의 지대를 품에 안고 있어, 지난 시절 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유명을 달리던 사람들을 지체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품에 안고 있다. 이름하여 망우리 공동묘지이다. 그곳은 용마산의 정상에서 북동으로 1,700m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필자가 본 용마와 아차가 곁으로 드러난 외연의 모습이 라면, 두산이 내포하고 있는 또다른 모습은 나를 나 자신도 모르게 일주일만에 한번씩 어김없이 잡아끄는 또다른 이유이다.

어쩌면 동산같이 적은 두개의 산, 그 속에서는 가을·봄·여름·겨울로 이어지는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하얀눈으로 뒤덮인 진한 겨울만을 빼고, 어떤 색깔이나 향기로운 두산은 나를 기꺼이 맞아준다. 지금같은 여름의 한 중앙(7월)에도 두 산에는 희고 노랑고, 심지어 철을 잊은 보라빛의 싸리꽃까지 반겨준다. 살짝 눈을 아래로 굴리면 들나물의 노란 꽃이 눈을 부시게도 한다.

지난 봄에는 발길 닿는 대로 따라 들어간 곳이 긴고랑이었는데 스스로의 향기에 차마 떠나지 못한 아카시아꽃의 향에 나 자신도 더불어 취해 길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 아마 두 산의 아카시아꽃의 향기가 유난히 진한 이유는 그보다 먼저 피어 온갖 자태로 두 산을 찾은 사람들의 땀을 빼앗은 연분홍의 진달래와 철쭉에 대한 시샘이었으리라.

이제 여름이 다할 8~9월의 그때, 아차산과 용마산에서는 무던히 나라를 생각하며 이곳 저곳 무궁화꽃을 정성스레 옮겨놓는 사람들을 만난다. 괜히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그러나 아차산과 용마산이 그런 다정함만 있는 곳은 아니다. 그 속에는 자연의 냉엄한 법칙도 엄연히 존재한다. 지난 겨울 이상 난동에 양지쪽에서 철모르고 살짝 고개내민 여린 진달래가, 채 꽃봉우리를 마음껏 펴 보지도 못하고 그자리에 얼어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꽃샘추위의 잔인함도 있다.

나는 또 돌아오는 주말 분명 여름이 정중앙을 향해 달려 무더울 것이지만, 그래도 오누이의 다정한 모습을 한 용마산과 아차산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누님같은 다정한 두 산과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허락받고 올 것이다. 그리고 또 내 누님의 기다림이 헛헛하지 않도록 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